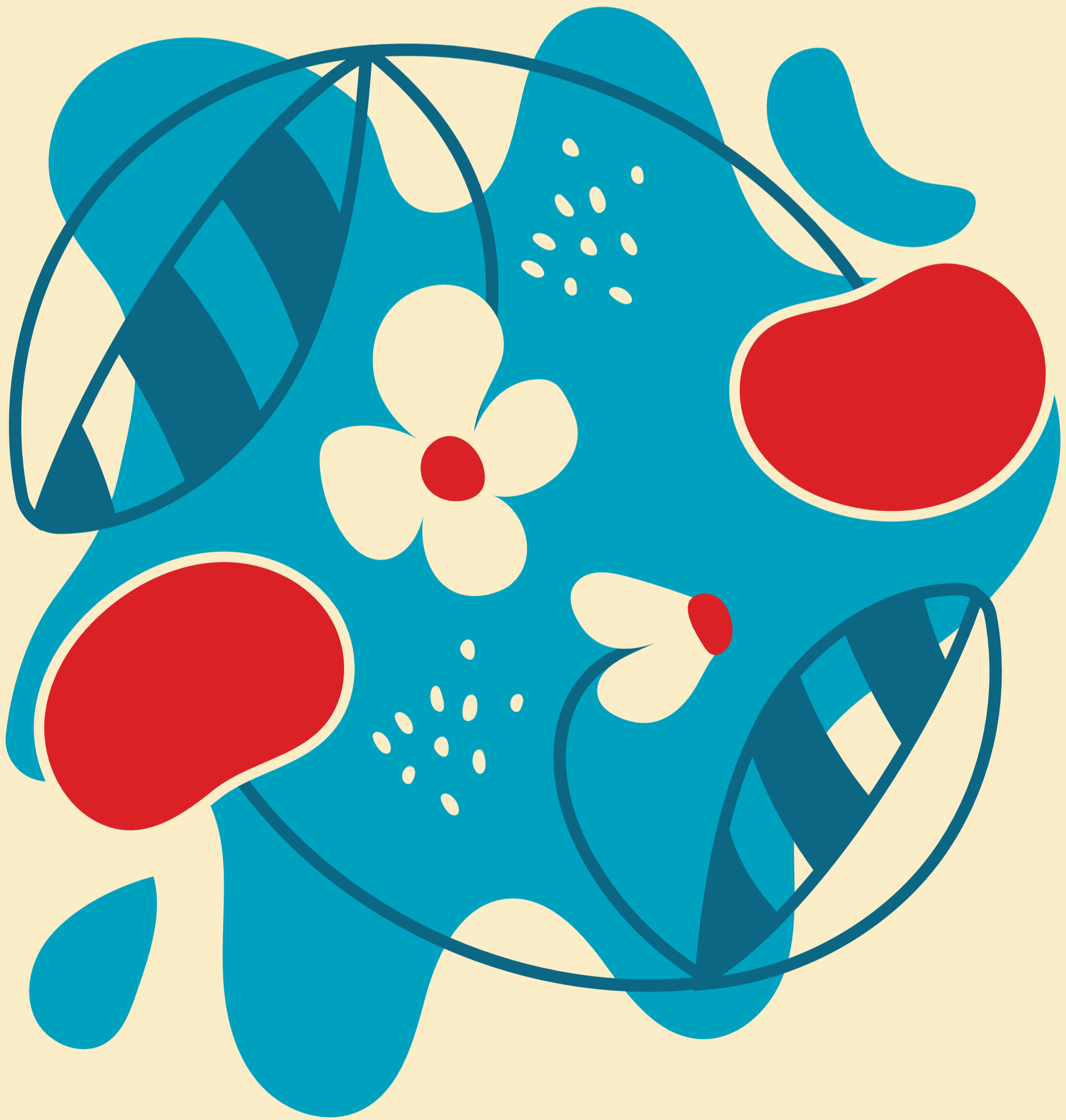


큰빛은혜교회 가정에배시

2024. 5. 15. WED



가정 예배 순서

예배준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인도자 / 기도자 등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사도 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

다 같이

각 가정마다 악기를 가지고 아래 찬송가 혹은 원하시는 찬양을
선곡하여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1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엮드려 경배 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 2 오 하나님 우리의 대 주재시여 큰 풍량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 3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 주재께 영광을 돌리오라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대표 기도

-----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합니다 -----

기도자

성경 봉독

----- 창세기 2장 1~3절 -----

다 같이

- 1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 2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 3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계시의 첫 문을 여는 창세기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라는 존재론적 물음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미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로부터 계시의 서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 서문의 처음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2장에서는 그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의 대업을 이뤄가시는지 살펴볼 때 가정과 개인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뚜렷한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권위에 찬 선언은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요 소유주이심을 밝혀줍니다. 달리 말하면 만물이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실로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 당신의 거룩하심과 신성을 드러내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은 창조 역사 속에 나타난 당신의 신성이 온갖 피조물들로부터 찬양받고, 사랑을 받으며, 영광 받으시기 위해 창조의 대업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과 개인도 하나님의 뚜렷한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음을 인식하고 그분께 예배자로 때로는 자녀로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만물은 자연발생적이거나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 모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전능을 기초로 단계적이며 주도면밀한 계획하에 차례차례 제 모습이 갖춰진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6일이란 시간을 설정하시고, 각 날마다 각각 독특하고도 그 다음 창조사역에 필수적인 부분들을 창조해가셨던 것입니다. 실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그분께서는 혼란과 충돌의 신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심으로 교회에서도 질서 있게 사역을 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34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도 규모 있고 질서 있게 살아야 하고, 직장에서도 질서 가운데 일을 잘 해나가야 하며, 무엇보다 교회와 가정에서도 질서있게 사역과 사랑을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셋째, 조화롭게 창조하셨습니다.

6일간의 창조 내역을 살펴보면 한 날, 한 가지 피조물은 다른 것들에 절대적으로 독립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각 개체들은 상호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같은 시공에서 만날 때에 비로소 완벽하고도 아름다운 가치를 발휘하게 됩니다. 이는 창조의 대업을 계획하신 성부, 실행하신 성자, 완성하고 적용하신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의 일체와 조화로움에 온전히 반영된 결과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영원한 선언은 우주 만물에 대한 당신의 주권과 소유권을 단적으로 천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쁘신 뜻대로 창조하시되 분명한 목적을 두시고, 질서있고 조화롭게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과 우주를 대할 때마다 그것들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깃든 사랑과 그분의 깊은 관심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가정과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목적과 질서대로 조화롭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눔

다 같이

- 1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 2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영광을 찬양하고 보여줄 수 있을까요?

중보기도

다 같이

- 1 큰빛은혜교회에 내적 부흥과 외적 부흥이 있도록
- 2 아직까지 성령 받지 못한 지체들이 성령 충만 할 수 있도록
- 3 여성도가 인도하는 4시간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 4 베이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의 전으로 돌아와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 5 목회자와 리더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마무리 기도

다 같이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질서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쓰임 받아 은혜를 누리는 교회와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